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현대미포조선, MR탱커 10척 수주 전망

현대미포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Bahri로부터 MR탱커 10척을 수주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현대미포조선은 현재 Bahri와 건조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다른 선주들과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Thailand readies tender for country's first FSRU

태국의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Egat)가 첫 FSRU를 발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됨. 태국은 LNG수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의 Flour를 통해 FEED를 마친 상태로 알려짐. Egat의 이사진은 곧 최종투자승인(FID)을 내릴 예정으로 알려짐. (Upstream)

## Cosco Energy sets up new tanker company in Hainan

Cosco Shipping Energy Transportation (CSET)가 중국 하이난 지역에 새로운 탱커선사 자회사(CSETH)를 설립했다고 보도됨. 중국내에서 건조중인 9척의 탱커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려짐. CSETH는 하이난지역의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Hainan Free Trade Zone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현대미포조선, 암모니아추진선 AIP 획득

현대미포조선이 영국 로이드선급(LR)로부터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에 대한 선급 기본인증서(AIP)를 받았다고 보도됨.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무탄소 대체연료로, 현대미포조선은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암모니아추진선을 상용화 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상반기 수출입 물동량 9.9% 감소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6월 수출입 물동량은 6억 3,403만톤으로 집계됐다고 보도됨. 지난해 7억 354만톤보다 -9.9% 감소했다고 보도됨. 컨테이너 화물은 1,424만TEU로 집계됐으며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 상반기 노후선 폐선율 부진

상반기 해운업계 노후 선박 폐선율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상반기 폐선율이 연초 선복량 대비 0.9%에 그쳤다고 보도됨. 아시아지역의 선박해체 야드가 폐쇄됐던 것이 폐선량 감소 원인 중 하나라고 보도됨. (선박뉴스)